

공연

에이즈에 대한 백년대계

지난 6월1일-3일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월드비전의 주최로 국내 첫 에이즈(AIDS) 간접 체험행사가 열렸다.

금 김신혜 독립영화 감독·작가

白年大計



에이즈 클리닉에서는 어린 시절 로모이가 경험했던 HIV양성판정 과정을 대리 경험 하게 되고, 실제 관 속에 들어가 천정에 설치된 거울을 보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로모이의 심정을 느껴볼 수도 있다.



끼로처럼 설치된 30여 명의 텐트 속 체험장. 이곳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HIV양성감염인 로모이(13)의 일상과 죽음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MP3를 통해 들려오는 안내 말에 따라 텐트 안에 재현된 로모이의 집을 방문해 에이즈로 숨진 로모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구슬 꿰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로모이의 생활을 경험한다. 또 에이즈 클리닉에서는 어린 시절 로모이가 경험했던 HIV양성판정 과정을 대리 경험 하게 되고, 실제 관 속에 들어가 천정에 설치된 거울을 보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로모이의 심정을 느껴볼 수도 있다. 끝으로 작은 쪽지에 로모이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체험장 벽면에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청소년 행사에서 이런 체험행사가 열린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직 스펀지처럼 뭉든 있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나름대로 가치 정립을 해간다. 이럴 때부터 열린 학습과 체험의 장을 경험하는 것 만큼 큰 교육은 없다.

열마 전 초등학교 5, 6학년 200여명과 영상 제작 교육과 성교육 관련해 강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매끄럽고 활발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놓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후 활발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결혼해 끊임없는 화제를 뿌리고 있는 '하리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리수'라는 인물을 그쳐 '스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그녀를 통해 '성전환'이라는 문제에 대해 '트랜스젠더'에 대해 거부감이나 편견 없이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단지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불과 몇 달 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과도 강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었는데 고교생들은 동성애나 성전환,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과반수 이상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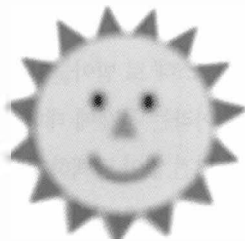
이는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과 정보를 접하며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치 형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말해주는 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다.

대학로 거리에서 한 의료기관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혈액형 확인과 HIV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이

벤트를 시행했었다. 15세 미만의 연령은 '에이즈 검사'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 없이 응했는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에이즈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강도가 높아졌고, HIV 바이러스 검사 자체에 대해서는 무료라면 한 번쯤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주변을 의식하고 망설이거나 결국 자리를 피했다.

잠깐 연령은 특별한 행사나 의도적인 계도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 영상이 아니라도 누구든 에이즈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자 하면 부담 없이 찾아가 체험하고 학습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나 '기념관' 같은 무료 학습시설이 필요하다. 편견이 뭘지 오히려 차별이 뭘지 모르는 유아기부터 올바른 정보를 통한 학습과 자율적인 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가치를 정립하게 되면 구시대체를 통해, 몇몇 단체가 앞장서, 감염인들이 가슴을 치



그저 막연히 편견 타파와 질병 퇴치만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차분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로 뛰어나가야 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지? 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성 관계를 통한 감염이 가장 많다는 비명 하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계몽을 하고자 한다면 유치원생들도 입장이 가능한 에이즈 체험관과 교육관을 설립해 무료 개방을 하자.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일년에 150억 달러가 든다는 UN발표가 있었다. 잘 계산도 되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다.

빠르고 필요한 교육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 인류의 건강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저 막연히 편견 타파와 질병 퇴치만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차분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당상 시급한 현인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백년대계는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